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203

JCCT 2023-9-25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Knowledge abou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of Older Persons

이성은

Lee Sungeun*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의 수준과 심폐소생술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2년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총 8,86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은 심폐소생술 지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자원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인지기능이 좋을수록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원의 경우 배우자가 있을 경우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지식에 있어 취약한 노인그룹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노인,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회귀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knowledge abou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of older person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2022 Social Survey conducted by Statistics Korea was utilized and 8,862 older persons aged over 65 years old were analyzed. Results of the analyses showed that individual resources and social resources of older persons had significant effects on knowledge abou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Regarding individual resources, a higher level of education, a higher level of income, a higher level of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a higher level of cognitive function increased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of older persons. Regarding social resources, having a spouse and a higher level of satisfaction of relationship with children increased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of older persons. Based on results of this study, various interventions are needed to improve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mong vulnerable older groups with regard to the coping knowledge with emergency situation.

Key words : Older Persons, Emergency Situatio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Regression Analysis

1. 서론

2023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앞으로도

*정회원,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제1저자)
접수일: 2023년 7월 30일, 수정완료일: 2023년 8월 25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5일

Received: July 30, 2023 / Revised: August 25, 2023
Accepted: Sept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lees@pusan.ac.kr
Dept. of Social Welfare, Pusan National Univ, Korea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1]. 이러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의 건강 및 만성질환에 대한 관심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1년 진료비통계지표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본태성 고혈압이 다발성 질병 외래 부문 2위로 나타났다[2],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경우 심장 질환이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다[3]. 60세 미만인 다른 연령대의 경우 사망원인 1위와 2위에 모두 심장 질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령층이 심장 질환에 특히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3].

이러한 심장 관련 질환의 경우 심정지 같은 응급상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응급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된다[4]. 심혈관계 질환은 심정지의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5] 특히 노인과의 교류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급성심장정지 발생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율이 2.2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6]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은 환자의 생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노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최초반응자가 될 가능성이 큰 요양보호사와 같은 인력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어 왔으나[7] 노인 당사자의 심폐소생술 지식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급성심장정지는 가정과 같은 비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으며[6] 노인 가구 중 노인부부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이 5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8] 노인 배우자가 최초 반응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인 스스로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노인 스스로도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노인도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사 대상 노인의 92% 이상이 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

그러나 2022년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10]에 의하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9.9%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 경험률이 낮아져 20대의 교육 유경험률 86.0%에 비해 60대 이상은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은 비율이 52.9%에 불과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10]. 또한 교육 경험과는 별개로 환자 발생 시 실제 심폐소생술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지 시행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20대의 경우 68.4%가 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나 60대 이상의 경우 58.4%가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그리고 심폐소생술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정확한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10].

고령화의 진행과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대한 노인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지식을 보다 쉽게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이 응급상황 대처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지식 수준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노인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지식과 관련된 요인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2년도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조사는 1977년에 시작하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조사이다[11]. 2022년 사회조사는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에 걸쳐 차이가 없는 노인 8,86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독립변수는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의 2가지 범주로 설정하였다. 개인적 자원은 교육수준, 소득, 건강상태, 인지기능을 포함하며 사회적 자원은 혼인상태, 자녀와의 관계를 포함한다.

먼저 개인적 자원 중 교육수준은 초졸이하=1~대졸이상=4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소득은 월 평균 가구 총소득을 의미하며 100만원 미만=1~800만원 이상=9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건강상태는 주관적 건강상태로 “귀하의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매우 좋다~5=매우 나쁘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항을 매우 나쁘다=1~매우 좋다=5로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인지기능의 경우 “기억하거나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전혀 어렵지 않다~4=전혀 할 수 없다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항을 전혀 할 수 없다=1~전혀 어렵지 않다=4로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원의 경우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음=1, 그 외의 경우 배우자 없음=0으로 코딩하였다. 자녀와의 관계는 가족 관계 중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1=매우 만족한다~5=매우 불만족한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항을 매우 불만족한다=1~매우 만족한다=5로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 외에 통제변수로는 연령, 성별, 거주지역을 포함하였다. 연령은 만 나이를 사용하였으며 성별은 남성=1, 여성=0으로 코딩하였다. 거주지역의 경우 동부=1, 읍면부=0으로 코딩하였으며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를 도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심폐소생술 지식으로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1=아주 잘 알고 있다~4=전혀 모른다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

항을 전혀 모른다=1~아주 잘 알고 있다=4로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에 대해 SAS 9.4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심폐소생술 지식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질문인 심폐소생술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회귀분석에 앞서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12].

III.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연령은 평균 74.3세(sd=7.0)로 나타났으며, 성별 구성의 경우 남성 노인이 3,869명으로 43.7%, 여성 노인이 4,993명으로 56.3%를 차지하였다.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응답한 노인이 5,430명으로 61.3%, 도시가 아닌 것으로 응답한 노인이 3,432명으로 38.7%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개인적 자원의 경우 교육수준은 평균 2.0(sd=1.1)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은 평균 2.5(sd=1.8)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평균 2.9(sd=.9)로 5점 만점 기준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또한 인지기능은 4점 만점 기준에서 평균 3.6(sd=.6)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사회적 자원인 혼인상태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노인이 5,746명으로 64.8%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3,116명으로 35.2%를 차지하였다.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5점 만점 기준에서 평균 4.0(sd=.8)으로 나타나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한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심폐소생술 지식의 경우 평균 2.1(sd=.9)로 나타나 4점 만점 기준에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변수		Mean(SD)	%	
통계변수	연령	74.3(7.0)		
	성별	남성	43.7	
		여성	56.3	
	거주지역	도시	61.3	
		기타	38.7	
독립변수	개인적 자원	교육수준	2.0(1.1)	
		소득	2.5(1.8)	
		건강상태	2.9(.9)	
		인지기능	3.6(.6)	
	사회적 자원	혼인상태	유배우자	64.8
			기타	35.2
		자녀관계 만족도	4.0(.8)	
종속변수	심폐소생술 지식	2.1(.9)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교육수준의 경우 심폐소생술 지식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377, p<.001$).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역시 심폐소생술 지식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r=.190, p<.001$) 소득이 높을수록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심폐소생술 지식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r=.243, p<.001$) 본인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 역시 심폐소생술 지식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r=.167, p<.001$) 인지기능이 좋을수록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의 경우 심폐소생술 지식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r=.241, p<.001$)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심폐소생술 지식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r=.037, p<.001$)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s among major variables

변수	심폐소생술 지식	교육수준	소득	건강상태	인지기능	혼인상태	자녀관계 만족도
심폐소생술 지식	1						
교육수준	.377***	1					
소득	.190***		1				
건강상태	.243***			1			
인지기능	.167***				1		
혼인상태	.241***					1	
자녀관계 만족도	.037***						1

*** $p<.001$

3.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설정된 모델의 설명력은 23.3%였으며 유의미한 모델로 나타났다($p<.001$).

개인적 자원에 있어서는 교육수준, 소득, 건강상태, 인지기능이 모두 심폐소생술 지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역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경우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의 경우 인지기능이 좋을수록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원에 있어서는 혼인상태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모두 심폐소생술 지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가 있을 경우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연령, 성별, 거주지역이 모두 심폐소생술 지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일 경우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도시에 거주할 경우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3. Factors affecting knowledge abou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of older persons

		모델		
		B	β	
통제변수	연령	-.02305	-.17737***	
	성별	.33868	.18456***	
	거주지역	.07275	.03894***	
독립변수	개인적 자원	교육수준	.17609	.20413***
		소득	.01762	.03448***
		건강상태	.09418	.09327***
		인지기능	.04725	.03182**
	사회적 자원	혼인상태	.04061	.02130*
		자녀관계 만족도	.02094	.01954*
R ²	.2329			
F	298.61***			

*p<.05, **p<.01, ***p<.001

IV. 논의

본 연구는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은 모두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들의 경우 응급상황 대처 지식에 있어

취약계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은 대표적인 인적자원의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13]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응급상황시 필요한 지식의 필요성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적 자원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노인의 42.3%가 무학 및 초등학교 졸업의 교육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8] 우리나라 노인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노인의 경우 역시 전체 대상의 48.0%에 해당하는 노인이 초등학교 졸업의 교육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노인의 교육수준이 낮으며 이들은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에 있어 취약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상황 발생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서비스 계획에 있어 교육수준이 낮은 그룹을 우선적 타겟으로 설정하여 정책 및 서비스가 계획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정보 및 교육 제공을 위해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기반 심폐소생술 교육이 강의식 교육보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14]. 따라서 대상층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소득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심폐소생술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노인계층의 경우 응급상황 대처 지식과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마련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건강상태의 경우 본인이 인지하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인의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또한 노인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건강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16][17]. 따라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노인들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건소나 재가노인의 접근성이

높고 대중적으로 이용빈도가 높은 경로당[18] 등 지역 사회 조직들이 정보 전달과 소통의 공간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의 인지기능은 다양한 정보 및 지식에의 접근성과 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인지기능이 좋을수록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강 상태와 마찬가지로 인지기능의 저하를 보이는 노인의 경우 역시 응급상황시 필요한 지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및 서비스 계획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원은 사회적 자본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인 속성을 가진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19].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배우자의 존재 여부가 심폐소생술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거주하는 경우보다 가족 구성원의 존재가 지식이나 정보 획득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정보제공원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역시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가 정보전달의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신뢰나 네트워크를 통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20] 노인을 대상으로 정보와 지식전달의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도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21]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65세 이상을 하나의 노인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집단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노인일 경우와 도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일 경우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요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 있으므로 노인 스스로가 최초 반응자로서 대처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14]. 따라서 성별과 지역에 있어 정보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을 특정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과 관련 요인을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차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인해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과 관련된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 지식 수준 뿐 아니라 심폐소생술에 관한 정보 및 지식 접근을 촉진 또는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심폐소생술 지식에 보다 취약한 계층으로 파악된 노인들을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이들의 심폐소생술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2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vw_cd=\MT_ZTITLE&list_id=A41_10&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 [2]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22.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5030000&brdScnBltno=4&brdBltno=2421&pageIndex=1&pageIndex2=1#none>.
- [3] Statistics Korea. 2022.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200&bid=218&act=view&list_no=420715.
- [4] E.K. Lee, O.H. Kim, E.M. Kim, "The Effect of CPR Education in a Rural Communit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 121-128, June 2010.
- [5] M.S. Kwon, "The Effects and Retention of the AHA's BLS Training on Knowledge and Skill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2, pp. 222-228, December 2010.
- [6]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National Fire Agency, 2022. <https://www.kdca.go.kr/injury/biz/injury/recsroom/statsSmMain.do>.
- [7] J.Y. Hong, E.K. Yoo, "Development and Effects of Tailored CPR Practice Education for Care

- Worker in Elderly Care Faciliti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8, No. 7, pp. 311–320, July 2018.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8.8.7.031>
- [8] Y.K. Lee, S.J. Kim, N.H. Hwang, J.M. Lim, B.H. Joo, E.H. Namkung, S.H. Lee, K.H. Jung, E.N. Kang, K.R. Kim. 2020.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6496&page=1.
- [9] E.J. Yeun, Y.S. Kwon, M.J. Kim, “Awareness·Attitude and Willingness abou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Wellness, Vol. 11, No. 4, pp. 1–12, November 2016. DOI <https://doi.org/10.21097/ksw.2016.11.11.4.1>
- [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Medical Center, 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2022. https://www.e-gen.or.kr/nemc/investigation_view.do?brdctsn=11501&upperfixyn=N¤tPageNum=1&brdclscd=&searchTarget=ALL&searchKeyword=&searchDatayear=.
- [11] Statistics Korea. 2022. <https://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pubcode=KN>.
- [12] P. D. Allison, “Logistic Regression using the SAS System: Theory and Application”, SAS Institute Inc, October 1999.
- [13] J.S. Yun, I.J. Seo, “The Recognition Study on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s in the Gyeongnam’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Regional Industry Review, Vol. 36, No. 1, pp. 187–217. June 2013.
- [14] J.B. Yoo, J.H. Jeong, S.Y. Bang. “Effects of Simulation-based Education focusing o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on Attitude,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Rural Community”,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3, pp. 460–468, March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3.460>
- [15] N.J. Kim, “A Study on the Relation of Health Concern, Health Behavior,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between the Aged and the Preliminary Aged Group”,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17, No. 2, pp. 99–110, September 2000.
- [16] S.Y. Kim,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32, pp. 99–117, June 2006.
- [17] S.E. Lee, “Factors Associated with Awareness of Services for Dementia Prevention among Community-Dwelling Elderly”,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53, pp. 143–171, June 2015.
- [18] Y.R. Choi, J.Y. Oh, H.K. Park, “A Study on the Behavior of the Older Adults for Senior Leisure Welfare Facilitie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8, No. 4, pp. 381–386. July 2022. DOI <https://doi.org/10.17703/JCCT.2022.8.4.381>
- [19] S.M. Jang, H.M. Ha,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Capital and Depression among Middle-Aged Rural Adults: The Multiple-Parallel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40, No. 1, pp. 33–44, March 2023. DOI <https://doi.org/10.14367/kjhep.2023.40.1.33>
- [20] Y.M. Jang,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the Elderly Job Project and Quality of Life: Focused on the Social Capital Mediating Effect”,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10, No. 3, pp. 11–17. September 2022. DOI <https://doi.org/10.17703/IJACT.2022.10.3.11>
- [21] M.H. Han, “Analysis of Early Symptoms Recognition of Myocardial Infarction and Experience of CPR Education in the Elderly Popul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33, No. 3, pp. 479–490, May 2022.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